

3次 乳加工제품

판매경쟁 심화될 듯



申 東 吉

(보건신문 식품부장)

原乳부족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유제품 가격의 전반적인 인상 등으로 지난 7월이후 수요증가가 다소 주춤, 이번 겨울부터는 원유부족현상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전까지는 原乳의 공급부족으로 재고회전율이 높은 市乳의 생산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附加價値와 市場成長性이 낮은 市乳보다는 발효유와 치즈 등 附加價値가 높은 제품들의 판매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原乳需給推移

우리나라의 유가공업은 60년대초 정부주도 아래 놓여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왔다.

당초 낙농기반이 성숙되지 못했던 60년대부터 84년까지 국내 원유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부족분을 수입분유에 의존해왔으며, 특히 지난 82년부터는 3년간 매년 9천5백~1

만1천3백두의 젖소를 도입해 생산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원유생산량은 84년이후 크게 증가해 이후 4년간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원유과잉생산현상은 85년부터 젖소 수입 중단과 87년 하반기 이후 저능력우 도태, 낮은 원유가격으로 인한 낙농우사육 기피등으로 88년에는 다시 원유부족상황으로 반전되었으나 89년 들어 원유가격 상승에 이은 우유가격 인상, 전반적인 경기침체,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감축, 이상구 신드롬 등으로 재고누증이 초래돼 분유를 사료로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저능력우의 지나친 도태와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증액, 이상구 신드롬의 퇴색등으로 소비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지난 상반기에는 유례없는 원유부족현상을 겪었다.

이에따라 유가공시장은 원유의 1차 가공제품인 市乳를 제외하고는 분유와 아이스크림, 호상요구르트, 버터, 치즈등은 원재료 구득난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하거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분유수입과 아울러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제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증가세가 주춤, 원유부족난이 다소 진정되었다.

최근의 市場動向

지난 3/4분기까지의 유제품 매출현황에 따르면 최근 고성장제품으로 주목되고 있는 발효유와 치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이 매출감소 혹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재료의 구득난에 따른 생산중단과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市乳

현재 전체 유제품 소비에 대한 시유의 비중은 낙농선진국이 40% 수준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상태에서 그 비율은 매년 소폭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91년에 들어서는 원유의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가공비가 저렴하고 자금회수가 빠른 시유의 생산비중이 74%까지 뛰어올랐다.

시유의 소비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유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규모가 3/4분기말 현재 전년 대비 2.6%나 줄어들어 앞으로 유가공시장은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한 전략수립을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유의 소비증가율이 낮은 것은 원유의 공급부족과 이에따른 원유

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소폭의 가격인상이 단행된 학교우유급식의 채산성이 낮아 공급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粉乳

전지분유는 주로 원유재고시 처리되는 재고 조정품목으로서, 최근 원유가 공급부족으로 대부분 시유생산에 투입됨에 따라 전지분유의 91년9월까지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18.7%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 전지분유로 버터·크림 등을 제조한 후에 분말가공하여 처리되는 탈지분유는 식품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지분유의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전지분유의 유입등으로 91년7월까지의 소비증가율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분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제분유의 경우 1/4분기에는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2/4분기부터 조제분유에 대한 대중광고가 전면 중단되면서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 점차 감소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상당폭의 소비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올들어 이같이 분유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조제분유의 소비가 감소추세에 있는데다가

〈별표 1〉 原乳需給推移

(단위: 천톤, %)

	'87		'88		'89		'90		'91.9		비 고
생 산 량	1,413	22.4	1,632	15.5	1,762	8.0	1,752	-0.6	1,219	-4.4	(1,304)
소 비 량	1,425	22.6	1,652	16.0	1,642	-0.6	1,879	14.5	1,226	-8.9	(1,311)
1인당 소비량(kg)	33.9		39.4		38.7		42.8				

註: ()는 수입물량 포함시

〈별표 2〉 乳製品消費動向

(단위: 톤, %)

		'88		'89		'90		'90.9	
시	유	1,304,544	17.8	1,204,108	-7.7	1,336,067	11.0	873,595	0
발	유	225,963	17.3	283,990	25.7	352,837	24.2	302,390	16.6
분	유	41,435	1.0	44,908	8.4	59,070	31.5	36,879	-18.7
연	유	2,035	-27.5	2,317	13.9	3,449	48.5	3,279	53.2
치	즈	5,067	142.8	4,764	-6.0	6,712	40.9	3,597	26.0

원유의 부족으로 전지분유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초콜릿 제조에 사용하던 코코아분말이 대거 수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醱酵乳

70년대초에 출시된 유산균 발효유는 80년대에 연평균 16.5%의 높은 소비증가율을 보였으며 90년에는 호상요구르트시장의 정착으로 24.1%의 신장세를 시현, 유가공업에서는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

91년 상반기에는 원재료인 분유의 공급부족과 발효유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호상요구르트와 신상품으로 등장한 드링크요구르트의 수요급증으로 91년 9월까지의 발효유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6.6%가 증가했다.

▲ 기타 유제품

과거 외국산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치즈시장은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치즈의 생산 및 판매를 강화한데 이어 남양유업이 무방부제 치즈를 생산하면서 외국산 치즈시장이 국내 생산물량으로 크게 대체되면서 91년 9월까지의 치즈소비량은 전년대비 26%의 높은 신장을 기록했다.

유제품중에서 채산성이 낮은 버터의 경우는 원재료 부족에 직면한데다 식물성 마아가린의 시장잠식등으로 소비량이 크게 감소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원재료 부족으로 성수기인 하절기에 생산이 중단되는 등 고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에 기후불순으로 소비가 격감했기 때문에 91년 7월까지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무려 46.5%나 늘어났다.

원유수급 불균형

89년부터 90년초까지의 원유공급과잉이 분유의 사료화, 출혈수출, 저능력우의 도태등의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이상구신드름의 퇴조로 소비세가 회복되면서 원유부족현상이 야기되던 것이 91년에는 더욱 심화돼 일부 저수익성 제품은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고 시유를 생산하지 않고 분유를 원재료로 2차 유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분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직접 원유의 집유선을 확보하는 기현상이 초래되었다.

원유의 공급이 부족하자 원유의 대부분이 재고기간이 짧은 시유의 생산에 투입, 기타 유제품의 원재료인 분유의 생산이 극히 침체됐으며 분유를 원재료로 하는 2차 유제품중에서 시장성장성이 뛰어난 호상 및 드링크요구르트와 치즈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분유재고를 투입해 버터 등은 생산차질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상반기 소비량이 감소했다.

시장지위 再編

과거 유제품의 주시장이던 시유와 분유의 성장이 한계를 보임과 동시에 호상요구르트, 드링크요구르트, 치즈 등의 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유가공업체들은 이들 시장에서의 지위 구축을 위해 치열한 판매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91년 9월까지의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74.7%의 고신장세를 시현한 호상요구르트는 선발업체였던 삼양식품과 해태유업이 낮은 시장점유를 보이는 반면 한국야구르트유업이 38.5%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발업체에 속하는 빙그레가 16.1%, 후발업체인 매일유업이 14.2%를 차지하고 있다.

91년에는 원유의 부족으로 재고회전율이 높은 시유의 생산에 치중해왔으나 이문제가 풀릴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낮고 시장성장성이 낮은 시유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발효유와 치즈등 3차 유가공제품에서의 판매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